

## 음악당달다 [랄랄라쇼]

8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 /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작 : 연리목 연출 : 이정훈 출연 : 이정훈, 연리목  
음향감독 : 윤수영 무대감독 : 김슬지 스텝 : 한운기



### | 작품소개 |

음악의 힘은 때로는 말없이도 드라마를 펼쳐 보이고, 큰 몸짓 없이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갑자기 펼쳐진 신기한 무대와, 그 안에서 연주되는 살아있는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랄랄라쇼〉는 음악과 퍼포먼스+설치미술+키네틱아트(Kinetic Art)가 결합된 공연이다.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수레 형태의 이동형 특수무대(무대인 동시에 커다란 악기이자 설치미술, 키네틱아트)와 생생한 라이브 연주, 유쾌한 퍼포먼스의 융합은 색다른 예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명의 배우가 기이하고 커다란 수레를 끌고 등장한다. 다양한 서랍과 물건이 쌓인 수레는 그들의 집이자 이동수단이며, 공연무대가 된다. 집의 형태를 한 수레가 멈춰서고 공연무대로 변신하게 되면 서랍 곳곳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세상의 갖가지 이야기와 골치 아픈 현실을 익살스러운 노래와 상황극으로 풀어낸다. 생생한 라이브연주와 이야기가 끝나면 수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수레를 끌고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난다.

### | 단체소개 |

음악당 달다는 다양한 공연예술단체들과의 협업을 지속해온 두 명의 음악감독이 본격적인 음악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단체이다. 공연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음악이 아니라 공연의 주체가 되는 음악공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음악당 달다 멤버 이정훈 대표(공연자)는 〈비주얼시어터 꽃〉 〈극단 서울괴담〉 〈극단 배낭 속 사람들〉 등의 10여개 작품에서 음악감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밴드 한음파〉 〈어쿠스틱 월드〉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음악당 달다 멤버 연리목 연출(공연자)은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공연창작집단 뛰디〉의 음악감독으로 다년간 활동 중이며, 〈밴드 눈뜨고 코베인〉 〈밴드 티니모션〉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영화 〈은교〉 〈미생〉 〈또 하나의 약속〉 등의 작품으로 영화음악감독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 마당극패 우금치

## [청아청아 내딸 청아]

8월 13일(목) 저녁 8시 30분 /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작/연출 : 류기형 조연출 : 이주행 안무 : 임창숙 무대감독 : 김항식  
출연 : 함석영, 김미희, 성장순, 이상호, 김시현, 김연표, 유재진, 이신애, 이광백  
스텝 : 박지현, 이기원, 노현수, 김강산, 이영주



### | 작품소개 |

마당극 [청아 청아 내딸 청아]는 원판 심청전의 골격에 현대적인 풍자와 해학, 민족전래사상인 효(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마당판의 흥을 돌아주고, 뽕덕의 입담과 심봉사의 능청, 귀덕에미부터 황봉사까지 1인 5역을 넘나드는 배역변신, 심청이의 효심이 한데 어우러져 웃다가 우는 기막히게 재미난 풍자해학극이다.

떠돌이 광대패가 풍물과 다양한 기예를 뽐내며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면 심봉사가 등장해 자신의 눈뚱 내력을 늘어놓으며 극이 시작된다. 광씨 부인을 잃고 동냥짓으로 근근히 딸을 키우던 심봉사는 공양미 삼백석이면 눈을 뜨게 해준다는 화주승의 유혹에 덜컥 시주를 약속하고 마음에 병을 얻는다. 효심 지극한 심청은 아비를 위해 스스로 남경상인들에게 팔려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삼백석을 노린 뽕덕 어미는 심봉사에게 작은 교태를 부리며 재산을 알겨먹고 다른 봉사와 도망친다. 모진 고생 끝에 황성맹인잔치에 당도한 심봉사는 황후가 된 심청을 다시 만나 놀라움에 그만 눈을 뜨고 만다. 공연을 맺으면서 풍물패가 등장하여 모여든 관객과 함께 난장을 틀며 민요장단과 함께 대동놀이를 한다.

### | 단체소개 |

한국에는 전통문화예술의 독창성과 건강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민족 정서를 담아낸 '마당극'이라고 하는 고유의 연극양식이 있다. 마당극패 우금치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당극 공연단체이다. 30여개 이르는 레퍼터리를 모두 단원들이 직접 창작하고 매년 평균 120회 이상의 전국순회공연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금치의 작품은 매우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약 20명의 전업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창단 이래 2500여회에 이르는 창작극 공연으로 민족문화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현재 한국의 마당극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우금치의 마당극은 빠른 장면전환과 다양한 볼거리, 기발한 소품활용을 특징으로 공연시간 내내 관객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우금치가 지향하는 예술은 남녀노소 누구나 명쾌하게 이해하는 쉽고 재미있는 예술이다.

## 팜시어터 [할 말 있는 늑대]

8월 14일(금) 저녁 7시 / 자개애출존 야외무대

작/연출 : 공동창작

출연 : 김용선, 강지성, 김두영, 강우정, 허진



### | 작품소개 |

'숨겨졌던 동화 속 늑대의 진실! 이제는 밝힐 때가 되었다!!!'

따사로운 어느 날, 늑대 라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사람들 앞에 선다.

라울에 의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빨간모자 이야기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속의 늑대(라울)가(이) 사실은 양치기 소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 한다.

라울은 그 당시 가난했지만 착실한 청년이었고, 단지 모든 일이 빨간모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려다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실은!?

### | 단체소개 |

팜시어터는 '몸으로 쓰는 시'를 화두로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삶을 노래하는 창작 집단으로서, 자연과 인간, 삶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비추어 관객들에게 삶의 본질과 가치를 보게 하고 일상의 변화를 갖도록 돕는다.

## project곧스 [The Chair]

8월 14일(금) 저녁 7시 30분 / 지계예술촌 야외무대

안무/연출 : 박재영 출연: 박재영 박진영, 김미라, 김은지, 서교훈  
음악 : 사이, 양현석, 이교형



### | 작품소개 |

춤과 노래, 음악 그리고 관객참여로 이루어지는 스킵은 인연에 관해서 의자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오늘은 어떤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은 의자 같아서 비었을 때만 보이는 구나 (The chair 음악 중)

발 빠른 사회 속에 많은 만남들과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을 우리는 항상 마주하고 아쉬워한다. 그 순간들을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관객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 일깨워질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소중한 인연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 단체소개 |

Project 곧스는 2012년 거리로 나섰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몸짓,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아무렇게나 펼쳐진 바닥과 벽, 모든 것이 무대가 되고 장치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작업은 시작된다. 유동적이고 폭발적일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형지물에 대한 끊임없는 리서치를 통해 우리의 몸과 그 곳의 에너지를 호흡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Project 곧스는 '곧' 다가올 그 '곳'의 이야기다.

## 예술공장 두레 [다 그렇지는 않았다]

8월 14일(금) 저녁 8시 30분 /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작/연출 : 김인경 안무 : 오세란 음악 : 김강곤 기획 : 김평진  
출연 : 이석규, 한나움, 오세아, 신태희, 전아름, 남은실, 김형진



### 작품소개

제주와 옛을 팔면서 전국을 도는 <우당탕탕 예술단>은 창단 70주년을 맞이하여, 초대 단장인 '큰놈 선생'의 사연을 공연으로 만들어 보여준다. 경복궁이 재건된 1867년에 조선의 명문가문에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큰놈.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우당 이회영의 종복으로 평생을 우당선생과 함께 한다. 특권층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삼한갑족의 후예로 태어나, 온갖 부와 명성을 누리던 우당선생은 당대의 선각자들을 만나 자신의 의무를 고민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다. 결국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던 해에 자신의 6형제와 결의하여 집안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중국으로 건너기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할 결심을 하게 된다. 일제의 탄압을 두려워하며 이회영을 만류하는 당대의 지식인들과 벼들, 모두가 그렇다고, 별 다른 수 없다면서 이대로 숨죽이고 살아가자는 큰놈까지... 이회영은 최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데...이회영이 내린 일생일대의 결단은 무엇이였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구하려던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 단체소개

삶의 연극, 진실의 연극, 함께하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 1984년 창단한 예술공장 두레는 '광대무변세상(廣大無變世上)'을 만들어 간다는 의지로, 연희자가 언제나 넓고 끝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늘 살아 움직이는 '숨 쉬는 광대'로서 관객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작연희단체이다.

'전통연희의 현재화'라는 뚜렷한 목표 안에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과 현실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삶의 본질 인식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민족정서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실험으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마당극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예술공장두레 야외공연장에서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를 열었으며 <찾아가는 마당극제>를 2009년부터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술공장두레는 마당극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상대적 문화 소외지역주민 및 계층과 보다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 팜시어터 [달콤한 나의 집]

8월 15일(토) 저녁 7시 30분 / 자개예술촌 야외무대

작/연출 : 팜시어터 공동창작

출연 : 김용선, 강지성, 김두영 음향 : 이남련



## ! 작품소개 !

"베낭이 집으로, 쇼핑카트가 집으로,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되어있나요?"

이야기는 집과 집 터전을 사이에 두고 노들기1,2와 건물주 간의 한바탕 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치 있는 공연자들의 몸짓이 만들어 나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현대의 집이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되어있나요?"

## ! 단체소개 !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삶을 노래하는 창작 집단으로서, 자연과 인간, 삶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비추어 관객들에게 삶의 본질과 가치를 보게 하고 일상의 변화를 갖도록 돕는다. 팜 시어터는 "몸으로 쓰는 시"라는 화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 자계예술촌 [방을 위한 투쟁]

8월 15일(토) 저녁 8시 30분 자계예술촌 야외무대

작 : 박연숙 각색/연출 : 박세환 음악 : 사이 무대미술 : 김주열, 한형선  
출연 : 박창호, 박연숙 스텝 : 오창섭, 최병윤



### — 작품소개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방'을 갖고자 한다. 방은 인간의 해방구이며, 안식처이며, 인간성과 존엄의 보루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사회를 살아가며 원치 않지만 너무나 자주 자신의 세계를 침해당하는 경험을 한다. 나이가 많아져,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이 소수자들의 그것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배우기 부족해서 등 참으로 많은 이유로 인해 우리들의 인간성은 상처받고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기도 한다.

'방을 위한 투쟁'은 우리들이 꿈꾸는 방! 나만의 방! 진정한 방을 위한 두 인간의 처연한 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개인의 욕망과 희망, 안식, 인간성의 보장, 존엄 등 인간이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가치들을 '방'이라는 공간으로 상징하여 담아낸 유쾌하고 철학적인 블랙 코메디이다.

### — 단체소개 —

자계예술촌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구)자계분교를 임대하여 같은 이름의 공연, 창작공간 "자계예술촌"을 조성하고 지역에 기반한 예술교육 활동, 연극 장르를 중심으로 한 공연 창작활동, 지역순회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지정 전문예술단체이다.